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26~11/01

1. 미 서부항만 혼잡과 노동 리스크에 따른 물류 차질

2. 미국 화주 물류비 급등과 비용 압박

3.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항공화물 급증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4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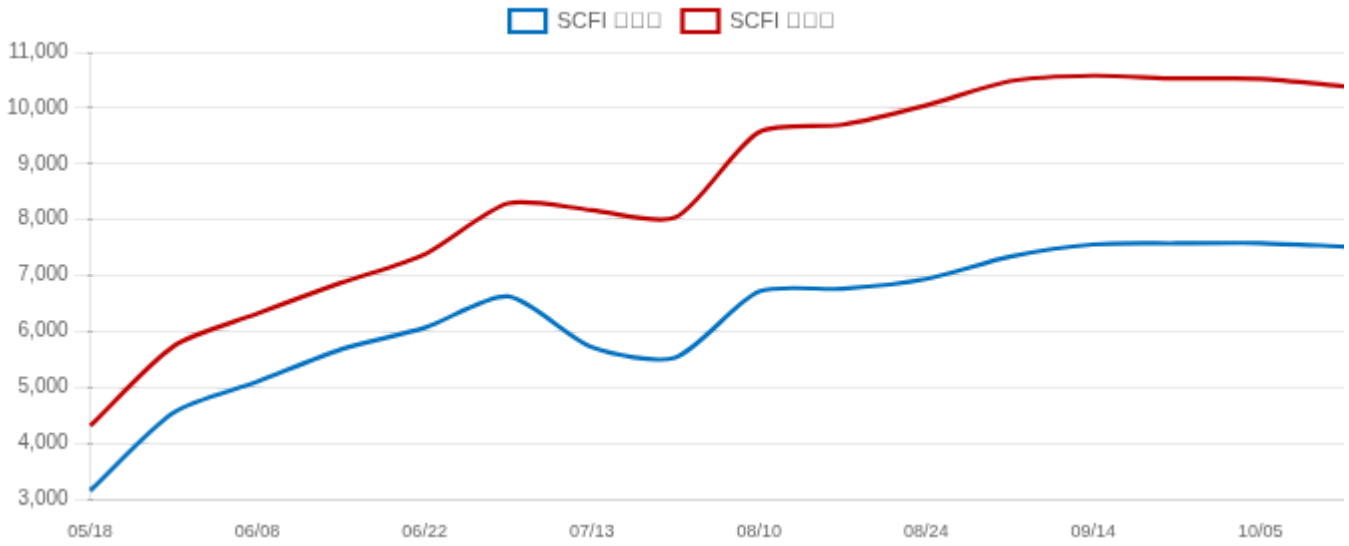
이번 주 미국 물류 시장은 서부항만 혼잡과 노동 리스크, 화주 물류비 급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항공화물 급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전개되며 공급망 복합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은 교량 보수 공사, 기록적 물동량, 항만 경비원 파업 위험까지 겹치며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이 심화됨. 이와 별개로 미국 화주들은 물동량 증가 없이 물류비만 5년 만에 최고로 급등하며 공급 제약과 운영비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을 겪고 있음.

이러한 해상·육상 물류의 병목은 항만 노동 불확실성과 인프라 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미국 서부항만은 단기간 내 처리 능력 정상화가 어려워 수입 물품의 내륙 유통 지연이 수주 이상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유통·제조업 전반의 재고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화주 물류비 급등도 운임 상승, 장비 임대료, 창고 보관료 등의 고정비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커 향후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한편 AI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가 항공화물 수요를 견인하며 아시아발 미국행 화물기 가동이 하루 평균 33대에 달하는 등 항공 부문은 별개의 호황 국면을 형성함. 그러나 이는 화물기 공급 부족과 기존 화물 지연을 유발해 전체 물류 시스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당분간 해상은 혼잡, 항공은 수요 초과라는 이원화된 흐름이 지속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될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7,521 $/FEU	10/19	—	-0.8%
SCFI 미동안	10,388 $/FEU	10/19	—	-1.3%
KCCI 미서안	8,267	10/26	+0.5%	+3.3%
KCCI 미동안	11,572	10/26	-0.2%	+2.5%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10/19

미 서부항만 혼잡과 노동 리스크에 따른 물류 차질

>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에서 교량 보수 공사와 기록적 물동량, 항만 경비원 파업 위험이 겹치며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과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LA·LB 항만의 컨테이너 지연이 가중되고 있음. 9월 트럭 체류시간은 3.18일(8월 2.95일), 철송 화물 체류시간은 7.19일(8월 6.75일)로 증가함. 캘리포니아교통국의 빈센트 토마스 브리지 16개월간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연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물동량이 급증하며 터미널 처리 능력을 압박함. LA항은 9월 104만2652TEU로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LB항도 99만7177TEU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수입 화물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공 컨테이너도 사상 최대를 기록함.

노동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됨. ILWU 소속 약 250명의 항만 경비원이 파업할 경우, 이들이 근무하는 터미널이 처리하는 화물은 LB항의 약 85%, LA항의 약 33%에 달함. 다른 ILWU 조합원들이 피켓 라인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터미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와 이소탱크 화학물 등 컨테이너 운송 의존도가 높은 화물의 공급망 병목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음.

- LA·LB 항만의 9월 트럭 체류시간 3.18일, 철송 체류시간 7.19일로 전월 대비 증가함.
- 빈센트 토마스 브리지가 일평균 5만3000대가 통행하며, 16개월간의 보수 공사로 우회가 불가피함.
- LA항 9월 처리량 104만2652TEU, LB항 99만7177TEU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ILWU 경비원 250명의 파업 시 LB항 화물 85%, LA항 화물 33%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LB항은 6주간 야간·토요일 게이트 운영 연장을 발표함.

전망

교량 공사와 파업 가능성이 겹치며 단기적으로 항만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LB항의 게이트 운영 연장 등 완화 조치가 시행되지만,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체선·체화가 심화될 수 있음.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임.

시사점

화주 — 수입 화물의 리드타임이 최대 3~4일 추가될 수 있어 재고 관리 및 대체 운송 수단 검토가 필요함.

포워더 — 항만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고려해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스케줄 조정이 요구됨.

항만·선사 — 터미널 운영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야간 작업 확대, 우회 항만 활용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함.

참고자료: Hellenic Shipping, ≣ LA·LB항 교량 폐쇄·물동량 급증에 컨테이너 지연 · The Loadstar, LA/LB port complex braces for potential strike as labour contract expires (검색일: 2026-11-01)

미국 화주 물류비 급등과 비용 압박

> **미국 화주들의 총 물류비 지출이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물동량 증가는 미미하여, 물류비 급등이 수요 증가보다 공급 제약과 운영비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3분기 미국 화주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급증해 2021년 이후 최대 연간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물동량은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침. 이는 트럭 운송 공급 부족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갤런당 6.50달러를 상회하는 등 운영비 급등에 기인함. 물동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비용이 크게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함.

지역별로는 남동부 물동량이 전분기 대비 4.7% 증가한 반면 서부는 3.1%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으나, 지출은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특히 남서부 지출은 전년 대비 51.6% 급증했는데, 이는 단속 강화로 운전자 확보가 어려워져 공급이 빠듯해진 영향으로 분석됨. 서부는 캘리포니아 경유 가격이 갤런당 8.25달러까지 치솟는 등 연료비 부담이 가중됨.

미국트럭협회(AT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화물 수요가 여전히 불균등하지만 기업들이 트럭 공급 부족, 높은 연료비, 강화된 운송사 가격 협상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 화주들은 물동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공급 축소와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는 수요 회복 지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함.

- 3분기 미국 화주 지출 전년 동기 대비 32.1% 급증, 2021년 이후 최대 증가율
- 같은 기간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침
- 전국 평균 경유 가격 갤런당 6.50달러 이상, 캘리포니아는 8.25달러까지 상승
- 남서부 지출 전년 대비 51.6% 급증, 운전자 부족으로 공급 제약 심화
- 서부 물동량 전분기 대비 3.1% 감소, 그러나 지출은 전 지역 상승

전망

당분간 화물 수요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도 공급 제약과 높은 운영비로 인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지속될 전망. 트럭 운송 공급 부족과 연료비 고공행진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용 상승 압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물동량 정체에도 물류비가 급등하므로 장기 계약 또는 대체 운송수단 모색 등 비용 관리 전략 수립이 시급함.

포워더 — 트럭 운송 공급 부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화주에게 보다 유연한 운송 솔루션과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항만·선사 — 내륙 운송 비용 상승과 지역별 물동량 변화를 반영한 네트워크 최적화 및 항만 운영 효율화가 요구됨.

참고자료: DC Velocity, 미국 화주 운송비 5년 만에 최고 증가...물동량은 정체 (검색일: 2026-11-01)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항공화물 급증

> **AI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붐이 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시장을 견인하며 데이터센터 관련 고가치 장비 수송에 하루 평균 33대의 화물기가 투입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항공 무역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화물기 공급 부족과 기존 화물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항공화물이 하루 약 33대의 화물기로 운송되고 있다. Aevean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10만 7천 톤이 미국으로 운송되었으며, 이는 약 1,000편의 화물기 운항에 해당한다. 올해 1~7월 글로벌 항공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으며, 아시아발 미국행 태평양 동향 노선은 24%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급증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GPU,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고가치·시간 민감성 화물의 항공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IAT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AI 관련 교역 가치의 3분의 2 이상이 항공으로 운송되었으며,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AI 관련 화물은 항공 운송 교역 총액의 53.5%를 차지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7%에 불과해 고가치 밀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수요 급증은 화물기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GRIT는 AI 붐이 물리적으로 화물 이동 방식을 재편하고 있으며, AI 관련 운송이 65% 증가하면서 고가치 기술 화물이 프리미엄 공간을 차지하고 기존 화물이 활주로에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의 소액 면세 규정 중단과 관세 부과로 7월 유럽행 전자상거래 물량은 29% 감소했으나, 데이터센터발 수요 강세가 지속되며 공급 여유가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

- 아시아발 미국행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항공화물은 하루 평균 33대의 화물기로 운송됨 (Aevean).
- 7월 한 달 데이터센터 관련 화물 10만 7천 톤이 미국으로 운송되어 약 1,000편의 화물기 운항에 해당.
- 올해 1~7월 글로벌 항공 무역 성장률 5.8%, 태평양 동향 노선 24% 증가.
- 2025년 AI 관련 교역 가치의 2/3 이상이 항공으로 운송되며, AI 화물은 항공 운송 교역 총액의 53.5%를 차지하지만 물량은 7%에 불과.
- AI 관련 운송이 65% 증가하며 고가치 화물에 프리미엄 공간이 점유되고 기존 화물이 지연됨.

전망

AI 데이터센터 투자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발 미국행 항공화물 수요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물기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이 예상되며, 유럽행 전자상거래 물량 감소로 인한 일부 여유는 곧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

화주 — 고가치 기술 화물의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프리미엄 운송 솔루션에 대한 예산 확보와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

포워더 — AI 관련 화물의 스케줄 준수 요구가 높아지므로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체 노선 개발이 요구된다.

항만·선사 — 항공 화물 급증에 따른 환적 화물 처리 역량 강화와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Air Freight News, 데이터센터발 항공화물, 아시아발 하루 33대 미국행 (검색일: 2026-11-01)